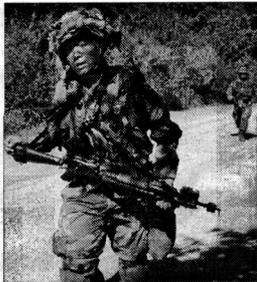


## 이번 호에는...

- 2면 군관련 소식  
김덕곤 지원단장 신년사  
주철환 교수 초청 강연
- 3면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바디
- 4,5면 부대 탐방  
제9기계화보병연대 2세대



- 6면 문화 행사  
만주행군
- 7면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 8면 안녕하세요  
이은주



**부대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찾습니다.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한달 전에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1월 이후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 이상의 카투사가 근무하는 부대를 위주로 신청 받고 있으며 관련 부대가 신문에 실린 지 6개월 이후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부대를 다른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고 동기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 2002년 단본부 연말 성과 분석 회의

지난 12월 11일 서울 용산 메인 포스트에 위치한 단본부에서는 전국에 널리 퍼져있는 각 지역대의 지역대장들이 모인 가운데 2002년 연말 성과 분석 회의가 열렸다.

연말 성과 분석 회의는 매년 연말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간부 회의로써 그 해에 우수한 근무태도를 보여준 장교나 부사관 혹은 병사들을 표창하고 각 지역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결산하는 회의이다.

2002년 연말 성과 분석 회의는 오후 2시에 국민의례와 함께 시작되었다. 국민의례가 끝난 후에는 2002년 한 해 동안 우수한 근무태도를 보여준 이들에게 한국군 지원단장 김덕곤 대령이 직접 연말 유공자 표창을 수여하였다. 이번 연말 유공자 표창을 수상한 유엔사 경비대 소속의 김민욱 병장은 "제가 속한 헌병대 안에서, 팀 리더로서 한국군과 미군이 협조하는데 작은 공헌을 하여 운이 좋게 상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기쁘고, 그만큼 더 책임 있게 군 생활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표창수여가 끝난 이후에는 '미8군 규정 600-2 개정', '전시 부대운용 계획', '한미 우호 활동' 등을 주제로 40여분간 단 참모부 성과분석이 있었다. 단 참모부 성과분석은 각 지역대의 대표가 각



카투사 신문 장승모

'카투사들의 막사 내 움주 통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 각 지역대의 대장들

각 다른 주제를 가지고 회의석상 앞으로 나와 미리 준비된 슬라이드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단 참모부 성과분석 이후에 이루어진 토의는 매우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카투사들의 막사 내 움주 통제'를 주제로 한 토의에서는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있는 카투사들의 움주를 심각하게 다루었다. 각 지역대의 대장들은 더 이상 움주로 인한 사고가 벌어지지 않도록 많은 사고 예방 대책을 개진하였다.

2002년 연말 성과 분석 회의는 한국군 지원단장 김덕곤 대령의 훈시로 끝을 맺

었다. 김덕곤 단장은 훈사에서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면 카투사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근무를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토론했게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각 지역대의 대장들이 많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카투사들이 멋지게 군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제대하고 나서는 우리 나라를 이끌 사회의 지도자들이 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회의에 참석한 지역대 대표들에게 바램을 표시하며 2002년 연말 성과 분석 회의를 마쳤다.

일병 장승모

## 희망찬 계미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제공사진

월드컵 개최, 대통령 선거, 미군 장갑차 사건 등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희망과 바램으로 가득 찬 2003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 다. 세계적 축제인 월드컵을 성공적으

로 개최했고, 은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장갑차 사건,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되기도 하였습 니다. 이제 그 동안의 좋았던 일들은 더욱 화려하게 만들고, 고통의 순간들은 뒤로 한 채 새롭게 만들어 갈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올해 있을 2003년경 주 세계 문화 엑스포 그리고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등 많은 행사들 또한 세계인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고, 복한 핵 문제 같은 사건들도 무사히 해결 될 것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카투사 신문은 애독해 주신 여러 카투사들께 감

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더욱 신선하고, 성실한 신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더 많은 카투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여행지나 혹은 영화평론과 같은 자신의 관심분야를 다룬 여러 카투사들과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신문에 자유롭게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성어린 기고문들은 약간의 편집과 함께 신문에 실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발전하는 카투사 신문을 올해도 찾아주시고, 즐기시고, 비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카투사들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군 장갑차 사건 해결에 앞장서며, 국민과 미군 사이의 갈등과 오해를 풀어들 수 있도록 열심히 군 생활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자신이 바라는 것이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카투사 신문 제작진 일동-

# 한국군 지원단장 김덕곤 대령의 신년사

친애하는 미 8군 한국군 지원단 장병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희망찬 전진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2003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단장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부여된 임무완수를 위해 최전방 JSA 경비대로부터 부산에 이르기까지 미군 각급 부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들의 노고를 높이 치하하며,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단장이 취임한 것을 비롯하여, 한미연합훈련, 야외훈련, 상급부대 집결 등으로 분주한 가운데서도, 각 지역대장 및 지원대장을 중심으로 전 장병이 일치단결하여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던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 8군 사령부와와의 적극적인 협조를 국산 집포프키트를 개선 지급하고, 식당에서 제공되는 한식의 질을 개선하였으며, 또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분야에 인가된 카투사의 직위를 일반직위로 전환함으로써 카투사의 복지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한 한해로 기억됩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한국군 지원단 전 장병은 선발된 한국군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주어진 직책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부대발전은 물론 개인의 발전에도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무와 기본에 충실한 카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카투사의 존재의의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카투사는 한미연합방위력 증진을 목적으로 미 8군에 예속되어 있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육군임을 항상 명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미군부대에서 미군과 함께 근무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만약 전쟁이 발발한다면 '적과 싸워질 수 있는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한국군이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미군의 교육훈련 및 작전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유사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한 정신교육과 체력을 갖춘 정예 카투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사고예방에 전 장병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단장은 부임 이후 카투사 병사들이 군에 복무하는 동안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거나 전과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5천여 카투사 병사들이 한반도 전역에서 불철주야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항상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각종 사고를 예방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각종 사고는 예방할 수 있

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한국군 지원단 전진부들은 자신의 근무기장을 스스로 정립할 수 있는 카투사 한명 한명을 자신의 자식 혹은 친동생처럼 보살피야 하며, 카투사 개인들의 애로사항 및 고민을 가진 카투사가 있는지 심도 깊게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며, 카투사 여러분들도 훈련시 차량운행간, 사격간, 외출 외박시 안전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 군복무 동안 어떠한 손상도 입지않고 임대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군과 생활하면서 겪게되는 갈등들은 지원대장과의 상담 또는 EO제도 등의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여, 이러한 문제가 서로간의 갈등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카투사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셋째, 카투사로서의 군생활을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기간으로 만들어 갑시다.

카투사 여러분은 군생활 동안 유창한 영어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물론, 외국인과 생활할 수 있는 국제 감각을 배양함으로써, 전역 후에는 사회 각 분야의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그리고 한국군 간부들은 연합작전에 필요한 어학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선진 미군체제를 적극 수용하여 한국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개인들의 능력 향상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군과 사회의 발전에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미 유대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현재의 한미 양국간 교류 중에서 가장 대규모의 인적교류는 바로 카투사 제도를 통한 양국 젊은이들의 만남일 것입니다. 매년 우리나라에 근무하기 위해서 오는 수많은 미군들은 카투사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 및 한국인을 평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한글 및 영어교육, 자가초청, 지역안내, 통역 지원 등 우호친선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의 만남과 우정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들을 명심하고 보다 진실된 우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바랍니다.

자랑스런 한국군 지원단 장병 여러분!

한국군 지원단의 발전은 여러분의 고민과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임무의 소중함을 자각하고 맡은바 임무를 훌륭하게 완수하는 멋진 카투사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지난해 여러분이 보여주었던 노고를 중심으로 치하하며, 새해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한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카투사지는 미 육군 규정 360-1에 의해 미8군 사령부 공보실에서 발행되는 한글판 비영리 미국방위 공민 신문물. 주한 미군 인사령에서 1부 3,500부씩 월 2회 발행됨. 이 신문은 전국의 미 육군 병사 한국군과 주한미군 요원들에게 배부되며 여기에 게재된 글과 의견은 미 육군상의 그것과 무관. 카투사지는 국주권자로서 배를 차고주변 지역주변 발행됨. 사무실은 부산 미8군 부대내 23722를 107호이며 전화번호는 723-6460/7196/4683/3537(fax)임. 모든 글은 발송구 제신상 지명 무죄로 시서함 58호 미8군 본부용대 공보실로 보낼 것임. 감사위원 주소는 kimddong@usfk.korea.army.mil임.

- 미8군 사령관
- 주장 찰스 세 캠펀
- 한국군 지원단장
- 대령 김덕곤
- 미8군 공보실장
- 중령 스티븐 에이 보일란
- 한국군 지원단 정보교장
- 대위 안동모
- 편집장
- 상병 김대동
- 기자
- 상병 이만석
- 일병 장병삼
- 일병 장승모
- 일병 윤종필



- Eighth U.S. Army Commander
- LTG Charles C. Campbell
-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r
- LTC Steven A. Boylan
- Information Strategy OIC
- MAJ Holly C. Pierce
- Editor
- CPL Kim, Dae Dong
- Staff Writers
- CPL Lee, Man Suk
- PFC Kang, Byung Sam
- PFC Jang, Seung Mo
- PVT Yoon, Jong Pil
- Special Assistant
- Mr. Oh, S. C.

KATUSA is an unofficial publication authorized by AR 360-1. Editorial content is prepared, edited and provided by the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APO AP 96205-0010. Contents of KATUSA are not necessarily the official views of, or endorsed by, the U.S. Government, Department of Defense, Department of the Army, or Eighth U.S. Army. KATUSA is an offset publication, printed twice monthly by the Document Automation and Production Service. 3,500 copies are distributed on the 1st and 3rd week of each month. Editorial staff is located in Room 107 Bldg. 2372, Yongson Garrison, Seoul, Korea. Office telephone numbers are 723-6460/7196/4683/3537(fax). Items submitted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should be sent to Eighth U.S. Army Public Affairs Office, Command Information Division, ATTN: KATUSA NEWS, APO AP 96205-0010. Or use our email address: parky@usfk.korea.army.mil. We reserve the right to edit items for brevity, clarity, and news style. Letters to the editor are accepted but must be signed. Names will be withheld by request.

## 주철환 교수 초빙 강연

"젊은이들의 태도 중 가장 나쁜 것은 수수방관하는 것입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꿈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지난 12월 18일 유상희 발보니극장에서는 유산 지역 카투사를 대상으로 하게 '카투사제도 왜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주철환 교수의 초빙강연이 있었다.

주철환 교수는 군에 입대하기 전과 군생활, 그리고 전역 후 PD생활을 하며 겪은 수많은 일들과 여러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친근한 분위기 속에서 카투사들에게 재미있게 전달하였다.

남보다 한참 늦게 입대하여 처음에는 군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주철환 교수는 카투사로 복무하는 동안 영어 공부와 자기 계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고 말했다. 주철환 교수는 카투사 시절 방송국 PD시절에 응모하였고 재대한 후에는 그가 아침에 PT를 하기 전에 열심히 들었던 영어 테이프의 주인공 민병철 선생의 생활영어 프로그램 PD가 되기도 했다며 자신의 성공담을 이야기했다.

그는 "인생은 결심하는 것"이라면서 신중한 선택을 하고, 선택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하여야 한다



카투사 인트뷰팀

면서 결심과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지금과 같은 시기일 수는 있지만 시간은 중요하다"라며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 것을 주문하였다.

민병 김병산

## 공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알려주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글을 모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제약은 없습니다. 단편물 뿐만 아니라 연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 723-6460

E-mail: kimddong@usfk.korea.army.mil

■ 군상식

◆ 북파공작원 그들은 누구인가?

1. 주요임무

북파공작원이란 한국전쟁중인 1952년부터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때까지 북한지역에 파견되어 활동한 무장척보원이다. 국군정보사령부에 따르면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뒤 남북이 공동으로 공작원 파견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북파는 자제하고 있다고 한다.

이 북파공작원들은 최초 한국전쟁당시 남한에 있는 지리산 탈치산처럼 북한의 후방을 교란시킬 목적으로 양성됐다. 적 생포 및 사살, 적군진지 주유시설물 폭파, 적지에서 각종 테러를 통한 사회혼란 야기, 첩보수집, 첩보망 구축 등을 주 임무였다.

이들은 인민군 복장을 위장 착용하고 육해공군의 보급지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으로 해결했고 미숫가루, 생식, 쉐리리, 소나무껍질을 주식으로 했다. 임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을 때는 자결이나 자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작전에 투입돼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극히 드물었다.

2. 채용대상 및 방식

북파공작원은 1950년대 북파자와 1960년대 이후 북파자로 나뉘볼 수 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 등으로 북파

공작원 조직편제나 운영이 대부분 주먹구구식이었으나 1960년대 후반에 돌면서 체계적이고 조직화됐다. 그에 따라 1950년대 북파공작원의 경우 실종 및 전사자가 90%에 이르렀으나 1960년대 후반에는 10%정도로 급감했다.

대상도 1950년대 북파자는 구월산 부대출신 등 대부분 월남한 이북출신이었으나 1960년대 이후에 이북출신과 고아 등 무연고자, 범죄자, 취직하려고 무작정 상경한 자가 평생보장을 명목으로 북파자로 선발됐다. 더러는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이 선발되는 경우 해병대출신으로 첩보능력이 인정된 경우였다.

선발방식도 60년 이후에는 보다 체계적으로 되어 주로 민간인을 채용하는 형식으로 선발됐는데 공개모집을 하지 않았으며 채용전담자가 있어 대상자를 탐색한 뒤 접근해 일대일 면담을 통해 선발했다.

1980년대 첩보부대 출신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당시는 고아나 전파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아나 전파자의 경우 북파됐을 때 전향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장남이나 외아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한다.

채용은 계약방식이었으며 3년 또는 4년 중 일정기간을 정해 채용했다. 채용 때는 상당한 보수가 지급됐으며 전과 성가 가 뛰어난 경우 성과급도 지급됐다. 한번 채용되면 계약기간 만료만 일을 시키고 비밀유지 각서를 쓰게한 뒤 해고했다. 기

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없으며 당사자가 사회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군경으로 특채하기도 한다. 일단 제대한 사람은 재계약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간인을 계약 채용하는 방식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50년대 북파공작원들 중에는 임무가 끝난 후 영장이 나와 다시 입대해야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전쟁 당시 소집돼 활동했던 북파공작원들은 자신들이 대위에서 이동중사까지 계급을 부여받아 당연히 군에 입대하는 줄 알고 있었다. 50년대 육군첩보부대에서 북파공작원 교육을 담당했던 김종벽 소령은 자신의 진술서에서 "제1기생 수료식에는 당시 부대장인 이철희대령(소장예편)이 대원들에게 임시계급으로 대위 중위 소위 상사 중사의 계급장을 수여했고 군번은 S00으로 부여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3. 한국 첩보부대 약사

무장공작원을 훈련시키고 북파를 담당했던 부대가 바로 육군첩보부대(HID) 제1교육대이다. 우리나라 정보담당부서는 지난 46년 군정정 국방총사령부 정보



재공사단

북파공작원들이 침투를 앞두고 전 부대원들이 모인 가운데 출정 환송식을 하고 있다. 꽃다발을 받아든 이들은 2-3일 안에 적지에 들어가야 했다.

과로 발족, 48년 조선경비대 총사령부 정보국으로 변경됐다. 같은 해 11월 육군본부 정보국으로 개편됐다. 50년 7월 신설된 육군본부 정보국 공작과가 첩보업무 담당했으며 영문자 HID로 표기했다. 한국전쟁 발발후 첩보업무 활성화를 위해 51년 3월 공작과를 독립된 육군첩보부대로 발족했다. 61년 HID는 영문자를 AIU(Army Intelligence Unit)로 바꾼 뒤 72년 정보대를 통합해 육군정보사(AIC : Army Intelligence Command)가 된다. 90년 육해공군 정보부대를 통합된 것이 현재의 국군정보사령부(DIC: Defence Intelligence Command)이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자료출처: www.militaryreview.com

카투사들의 한마디

2003년을 맞으며 새롭게 다지는 각오



2/9 보병대대 본부중대  
일병 이승준

입대하기 전, 그리고 자대전입을 한 후 세웠던 많은 계획을 지나쳐 온 것 같습니다. 다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지내 보려 합니다. 첫째로, 군사 외교관으로서 임무를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영어에 더욱 힘쓰려 합니다. 둘째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간적 이점을 활용하여 제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한 저만의 인생 공부를 하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새 마음 새 뜻으로 마치 신병으로 돌아간 듯 한 마음으로 군생활을 맞이하려 합니다.



2/9 보병대대 A 중대  
일병 조시형

KTA에서 1등으로 졸업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2/9에 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주위 선임병들에게 더 많은 기대를 가지게 하게 되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수많은 훈련들 속에서 힘들고 때론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때도 있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Manchu=인입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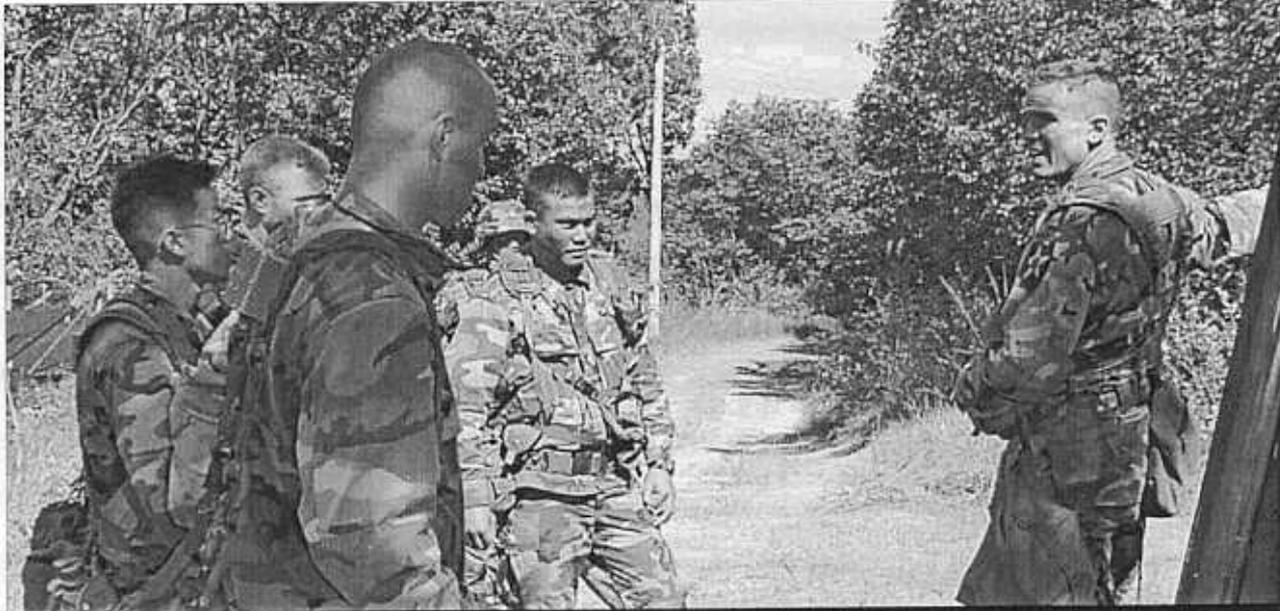
2/9 보병대대 A 중대  
병장 유제훈

선임병장을 시작한지가 얼마 안돼서 아직 일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중대원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항상 중대원들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각으로 최고의 선임병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복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처음 카투사로 입대할 때 생각했던 여러 가지 공부들을 꾸준히 해서 학교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올해의 목표는 책 50권 읽기와 일기 쓰기입니다.



2/9 보병대대 본부중대  
일병 이종혁

제대하고 난 후 후회하지 않는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 해를 알차게 보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일과 후 자유시간을 이용해 영어공부, 화과공부 가리지 않고 마음껏 해 볼 생각입니다. PT로 인해 자연스럽게 길러진 체력과 함께 자율적으로 나만의 교양을 쌓아 간다면 정말 보람찬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언뜻 보면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은 군생활에서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권인지도 모릅니다.



## MANCHU WARRIORS : 제9보병 기계화보병연대 2대대

자대배치 전 교육병들의 상당수가 권투병이 되기를 꺼리는 분위기라는 것은 무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과감히 지원하여 전방에서 갖은 훈련, 드문 패스와 함께 군생활을 하기로 저명한 카투사들을 보면 역시 멋지다는 말이 나온다. 카투사 권투병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흔히 '원나인, 투나인'으로 불리는 9보병 1대대와 2대대이다. 그중 2대대와 연관이 닿아 대대가 위치한 Camp Casey를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9보병 2대대-정식명칭은 제9기계화보병연대 2대대(2nd Battalion, 9th Mechanized Infantry Regiment)이다. 이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부대의 하나로 1798년 Maryland 민병대를 중심으로 창설된 9보병 2대대는 1812년에 정규군으로 결성되었고 1847년 멕시코 전쟁 시 재편성되었다. 현 9보병 2대대로 조직이 정비된 것은 1855년이고 1995년 20보

병 5대대 후속으로 현재 미 2사단 1여단에 편제되어 있다.(72전차 1, 2대대와 같은 소속이다. 9보병 1대대와 503, 506 보병은 2여단에 소속되어 있다. 비록 여단은 다르지만 9보병 1대대와 2대대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인디언 전쟁, 남북전쟁, 스페인 전쟁,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바 있으며 한국전쟁 시 부산에 파견되었다. 이같이 오랜 역사를 이어받은 9보병 2대대는 오늘날 전방의 중요한 전력 중 하나이다. 부산에는 야전에서 훈련을 하거나 부대 내에서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유사시에는 작전에 투입되는 것이 부대의 임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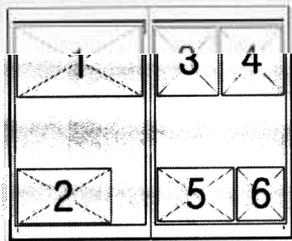
9보병 2대대는 Bradley 장갑차를 베고고는 논할 수 없다. 25mm 주포와 대포차 토우 미사일, 7.02mm 기동총 등으로 무장한 Bradley와 이를 관통한 보병의 조화가 기계화 보병의 핵심이라 하겠다. Bradley 장갑차는 전장의 전투지역으로

합계한 병력을 적 전차와 화기로부터 보호하고 수송하며 위험지역에 이르면 dismount(수송병력-보병)를 내보내 지역을 관리하고, 그후에 탱크가 안전하게 뒤따르게 하는 등의 전술을 쓴다.

9보병 2대대는 본부중대, A, B, C, D 중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80명의 카투사가 본부중대에 35명, 다른 중대에 11-12명씩 소속되어 있다. 미군은 약 720명 정도이고 보부중대에 한 명 정도가 카투사이니 상당히 느슨하다고 하겠다.

이곳의 카투사들은 장갑차 포사격과 보병 훈련을 하는 Gunnery, 동계기동훈련, 우수보병기강(EB:Expert Infantryman Badge)을 비롯해 1년 내내 크고 작은 훈련들이 있다. 훈련은 길면 27-4일 하우먼 5일정도인데 긴 훈련 중간에 추석이나 설날이 있을 때는 휴일을 쉬고 다시 훈련장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훈련이 없을 시에는 장비를 정비하

고 전투기술을 배우고 지내며 1년에 2번은 장비를 검사하는데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한다. 또 1년에 두번 25mile(=40km) 행군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부대의 상징인 만주 행군(Manchu Mile)이다. 만주 행군은 1900년 의화단 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타구안에서 탕진까지 힘든 행군을 실시했는데 현재 실시하는 행군은 이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탕진 공격 당시 대대장 Liscum 대령이 의화



1. 훈련 중 AAR(After Action Review)을 하고 있는 A중대의 이종원 병장(맨 왼쪽)과 팀원들
2. Warrior Competition 훈련 도중 식사를 하고 있는 D중대
3. Warrior Competition 훈련 중의 D중대 황시연 상병
4. 눈이 올 것에 대비해 Bradley에 천막을 치고 있는 B중대 선임병장 전주현 병장
5. 9보병 2대대 본부중대의 Formation광경
6. 행군을 하고 있는 D중대 홍재영 일병





태평사진



카투사 신문 김현보

단의 공격에 쓰러지면서 부하들에게 한 달은 부대 구호(Keep Up The Fire!! 사격을 계속하라!)가 되었으며 의화단 운동 진압 후 청 황제로부터 'Manchu' 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이것은 부대의 상징이 되었다.

카투사들은 보통 전역할 때까지 4 번 정도 하게 되는 만주 행군, 이 7-8시간의 행군에서 낙오하지 않고 귀환하면 증서와 이를 기념하는 벨트 버클을 주며 만주 행군 후에는 Liscum Bowl Party라는 것을 하는데 각종 술을 섞어 청 황제에게 받은 Liscum Bowl에 붓고 나서 부대 역사에 대한 대대장의 질문에 맞춘 사람만이 수통 집으로 그 술을 마실 수 있다고 한다.(7면에 관련된 기사)

전투부대 하면 가장 기대되는 것이 바로 PT이다. 중대별로 약간씩 다르지만 보통 매일 아침 6시부터 3-4mile 정도 뛰고 한 달에 한번은 2시간 정도에 걸쳐 12-14mile를 뛴다고 한다. Profile이 있는 인원을 제외하면 PT 250점

이하는 없다.

이곳의 카투사들은 다수의 미군과 함께 직접 부딪히며 고된 훈련을 치르고 있는데 훈련이 고될수록 권유에는 더욱 씩씩 미군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팀 리더를 맡고 있으며 기계화보병으로서는 드물게(일반 보병에 비해 공중강습기장을 획득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한다) 공중강습기장과 우수보병기장 포두를 BDU에 달고 있는 2/9보병대대 3중대 2소대 김우영 일병은 '팀 리더를 맡고 있기 때문에 미군 말원들에게 리더십을 보여야 하고 교육시켜서 작전시 침수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언어, 문화적 차이로 힘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또 훈련 때 서로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훈련이 끝나면 발칙이 갈로 다져지고 더욱 굳어진다고, 특히 분대 간 대항전에서 이것을 때는 더하다고 했다.

김우영 일병은 전투병을 지원한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좀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겠다고 느껴 지원했습니다. 와

보니 훈련은 재미있고 신기합니다."

9보병 2대대 D중대 선임병장 조태현 병장은 "여름에 훈련을 하면서 헛지도 않고 매일 자고 일어나서 전날 얼굴에 바른 위장(camouflage)위에 새로 걸은 위장약을 마르는 생활을 할 때 '아, 전투병이 구나하는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곳의 카투사 전투병들은 군생활의 34주 정도를 캠프에서 보낸다고 한다.

그는 고된 훈련 속에서도 사고가 없고 분위기가 좋은 것이 9보병 2대대의 특징이라고 말하며 '후임병이 들어오면 어려운 것이 있는지 물어주고 훈련시켜는 서로 귀찮다는 것을 아니까 서로 간섭한다'라고 설명했다.

조태현 병장은 군생활의 보람 중 하나로 '훈련 후 쉬는 내내 같이 식사하거나 하면서 훈련에 관한 무용담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추억도 많이 남고 이야깃거리도 풍부하다'는 점을 들며 전투병의 낭만을 전했다.

지원대장 장대성 상사는 9보병 2대대의 카투사들에 대해 '군기가 확립되고 사

기가 충천한, 실제 훈련으로 미군들과 함께 맘을 흘리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카투사들이 대한민국의 어느 부대 못지 않게 자랑스럽다'고 말하며 '2002년도 연합 방위력을 위해 대대에서 묵묵히 맡은 바를 충실히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2003년 한해도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하며 모든 인원이 건강하고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대대원들에게 전했다.

이번 취재는 12월 30일 이뤄졌는데, 전투부대라면 이상할 것이 없겠지만 2/9에서도 연말에 남아 부대를 지키는 인원이 많이 있었다. 부대에 복귀하자 기자에게도 12월 31일부터 1월 1일까지의 24시간 시설 경계근무가 기다리고 있었다. 2사단 카투사들을 비롯한 다른 군인들을 생각하며 전투복을 입은 채로 새해를 맞았다. 2003년에도 모든 카투사들이 몸 건강히 지내기를 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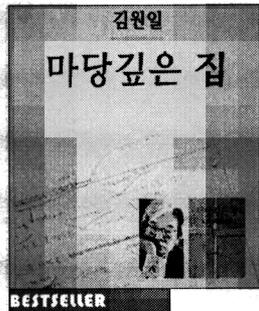
일병 김병삼



카투사 신문 김민성



태평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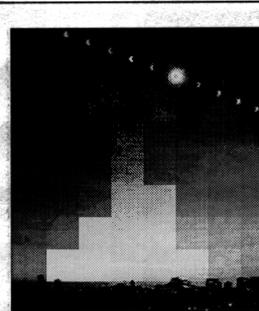


BESTSELLER

마당깊은 집

김원일 / 문학과지성사

길남이라는 소년이 바라본 6.25와 전쟁 이후의 세태를 생활의 공핍, 정신과 물질적 압박의 차원에서 묘사한 장편소설. 소년의 시점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50년대 초의 현실과 상처를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작가 김원일의 원숙을 느끼게 하는 이 책의 분위기는 냉전 체제의 종식이 강조되고, 전후 행태에서의 과감한 전환이 요구되는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특히 감명스럽게 다가온다.



WEBSITE

산수도인

<http://www.fortune8282.co.kr>

해마다 재미 삼아 혹은 액을 막는 기분으로 보게되는 운수와 토종비결은 우리나라의 민간 문화 중 하나이다. 이 사이트는 종합운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궁합, 사주, 토정비결, 관상 및 신세대 운세, 천부경 운세, 별자리 운세, 혈액형 운세 등을 제공한다. 다른 운세 사이트들과는 다르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자신의 운세가 궁금하다면 찾아가 볼 만한 사이트.

■ 문화 행사

만주 행군

미 2사단의 전통, '만주(Manchu)' 행군 개최  
2/9보병대대 및 예하장병들 참여

19세기말 일본이 아시아 유일의 초강대국을 꿈꾸고 중국대륙 진출을 시도하고 있을 무렵, 미 9보병대대에게 주어진 임무는 급속도로 팽창하는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막는 것이었다.

아군 지원사격의 도움으로 Taku Bar에 상륙한 미 9보병연대 앞에 놓인 가장 큰 과제는 바로 일본군에게 함락된 탱크를 수복하는 것이었다.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위해 육로를 택한 미 9보병연대는 탱크를 향해 행군을 하기 시작했다. 1900년 7월 13일, 굵은 날씨와 험난한 지형지물을 뚫고 탱크에 도착한 미 9보병연대는 연대장 Liscum 대령의 지휘 아래 탱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적의 쫓겨간 반격에 연대는 그 다음날이 되어서야 탱크 시내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대장 Liscum 대령이 적의 탄환에 맞아 쓰러졌다. 그는 숨을 거두기 전에 부하들에게 '포성을 멈추지 마라!(Keep Up the Fire!)'라고 당부하였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뒤, 미 9보병연대는 '만주인'이라는 자랑스런 명칭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에게 부여된 지휘관의 임무와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한 연대장을 기리기 위해



제2/9보병대대의 행군 모습

Liscum 트로피가 주어졌다. 지난 날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며, 사병들의 사기를 진작 시킬 목적으로 이들은 1898년 타쿠바에서 탱크까지 행군을 해마다 2차례 재연하고 있다. 행군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미 9보병연대들 상징하는 문양이 새긴 버클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만주 행군에 참가한 미 제2사단 2/9보병대대 부대장 David Blain 중령은 "이번 행군은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첫째로, 대대원들 전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가며 행군을 무사히 끝마쳤다는 것이고 둘째로, 행군을 통해 과거 미 9보병연대의 영광과 기쁨을 재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만주 행군이 벌써 세번째라는 미 제2사단 2/9보병대대 본부중대 인사과 상한식 선임병장은 "이번 만주 행군은 날씨 탓으로 영내에서 하게 되었다. 평소 다니던 길이라 익숙했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했다. 밤새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약간 힘들었지만 행군을 끝까지 마치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미 제2사단 2/9보병대대 본부중대 인사과 황선일 일병은 "만주 행군은 군인으로서의 극기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훈련 과정이다. 또한 미군과 같이 참여하면서 그들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행군을 마치고 중령인 Camp Casey에 도착하는 장병들의 얼굴엔 어느덧 기쁨과 자랑스러움이 넘쳐나는 모습이였다. ■

Indian Head/이병 연구영



11월 14일 만주행군에 참가한 제29보병대대 본부중대의 이승재 일병(우로부터 첫번째)과 이종형 일병(우로부터 두번째)이 능률한 모습으로 행군하고 있다.

# Winglish.Com 과 함께하는 English Talk N' Talk

## 제 6강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오늘은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정중히 물어보는 연습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대의 연락처를 물어 볼 땐 주의할 기술 여야 합니다. 특히 이성간에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죠.

Topic: "연락처를 알려 주세요"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주제 연구

연락처를 물을 때 What is your phone number? 하면 상대방이 상당히 불쾌한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공손한 어투로 May I have your phone number? 또는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가 좋지요.

A: Phoebe, how can I get in touch with you?

B: At 465-3654. I usually get home around 8.

A: How about during office hours?

B: 967-3956 extension 102.

번역)

A: 피비 양, 연락처를 알려 주십시오.

B: 465-3654 로 연락하세요. 보통 8 시 경에 집에 옵니다.

A: 근무 시간엔 어떻게 연락을 드리지요?

B: 전화967-3956 하셔서 내선 102을 누르세요.

해설)

office hours를 연구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선 9시부터 5시까지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직장인을 Nine to five (9시부터 5시 까지 일하는 사람) 라고 표현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관공서에서 서류를 접수할 땐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봅니다. 오늘은 그런 연습을 합니다.

Topic: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Can you tell me your SSN?"

영어를 국가들중 특히 미국에선 약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늘 연습할 SSN도 그 중 하나입니다.

A: Can you tell me your SSN?

B: I beg your pardon?

A: Your SSN, I mean Social Security Number?

B: I don't know it by heart. I have to check my ID.

번역)

A: SSN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B: 뭐라고 말씀하셨죠?

A: 주민등록번호 말입니다. (사회보장제도 번호)

B: 기억 못하겠어요. 신분증 보고 확인해 볼게요.

해설)

미국인들이 자주 쓰는 약자를 몇 개 볼까요?

- 1) ATM : 자동현금지급기
- 2) RIP : 편히 잠드소서(묘비)
- 3) CEO : 회사의 대표이사
- 4) DUI : 음주운전
- 5) VAT : 부가가치세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미국엔 워낙 여러 인종이 공존하므로 고향을 물어볼 때 단순히 어디 출신이나 보다는 "어느 나라 출신이냐?"를 살짝 돌려서 물어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 표현을 오늘 공부합니다.

Topic: "원래 어디 출신(고향 또는 국가)입니까?"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주제 연구)

이런 예를 들어 볼까요? LA 에 '토니 김'이라는 한국 학생이 있습니다. 세 살 때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땐 LA에서 살지 않고 아빠의 직장이 San Francisco에 있어서 그곳에서 살았지요. 그 후 아빠가 L.A.로 전근을 가게 되어 가족들도 함께 L.A.로 이사를 갔죠. 그럴 경우 L.A.에서 만난 '토니 김'의 친구인 Carlos가 묻습니다. "Hey, Tony, where are you from?" 이때 Tony 는 "I'm from San Francisco." 라고 합니다. Carlos 가 또 묻습니다. "I see,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하면 Tony는 "I'm originally from Korea." 라고 할 수 있어요. "감 잡았어요?"

A: Miss. Yamaguchi, where are you originally from?

B: I am originally from Osaka, Japan. What about you?

A: I am originally from San Jose, California.



Winglish.com

번역)

A: 야마구치 양, 원래 어디에서 오셨어요?

B: 전 일본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당신은요?

A: 저는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출신이지요.

해설)

미국 역사를 간단히 보면 서부 지역은 Spain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명도 Spanish가 많지요. 예를 보면 California 의 San Francisco, Los Angeles, San Jose (발음 주의 '산조세가 아닌 '산 호세'이죠) Sacramento, 등등.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여러 인종이 어울려 사는 미국에서 심심찮게 묻는 질문이 '태어난 곳' 또는 '어느 나라 출신'입니다.

opic: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Where is your birthplace?"

주제 연구 : 미국인들에게는 '개척 정신'이 깊게 스며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주 이사'를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 6개월에 한번씩 이사를 가는 친구들도 있지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이라고 미국인이 물을 땐 "당신 고향이 어디야?" 보다는 "여기 오기 전에 어디서 살았어?" 정도가 더 자연스런 해석입니다.

A: Miles, where is your birthplace?

B: I am from Queens, New York.

A: Is it near Manhattan?

B: Yes, it is. It is a tough place.

번역)

A: 마일스 씨, 어디서 태어났어요?

B: 뉴욕의 '퀸스'라는 곳이지요.

A: 맨하탄 근처인가요?

B: 네, 살기 힘든 곳이었어요. (동네 분위기가 별로였어요)

해설) New York City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크기는 우리나라의 1/123 이고 인구는 약 7,300,000 그리고 다섯 개의 자치구역(boroughs)으로 나뉘져 있습니다. 나열하면, Manhattan, Staten Island, Bronx, Brooklyn, Queens, 이 중 Queens에는 특히 흑인들이 많이 살지요. (파일,야채 파시는 한국 아저씨들도 많아요.)



반지의 제왕 - 두 개의 탑

감독: 피터 잭슨

주연: 엘리자 우드, 이안 맥켈런

2001년 개봉한 반지의 제왕의 두 번째 시리즈. 악의 군주 '사우론'이 암흑세계의 두 개의 탑 '오르싱크'와 '바랏두르'를 통합하여 점점 그 세력을 넓히는 사이 인간 종족들은 내부의 불화로 쉽게 힘을 모으지 못한다. 선과 악 사이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은 곧 현실로 다가온다. 전편에서 등장했던 골롬이 재등장하며, 전편에서 죽었던 간달프는 백색의 마법사로 화려하게 부활한다.



TOP CHARTS

이기찬

김기

2. 빛 / 이수영
3. Miracle/UN
4. Never ending story/ 부활
5. 점점 /Brown eyes
6. 12월 32일/별
7. 아마도 사랑이겠죠/장나라
8. Why/신승훈
9. 낙원 / 싸이
10. 어떤가요/박화요미
11. 아리ारी/이정현
12. 좋은 날/유리상자
13. 잠시만 안녕/M.C. the Max

# 말랄, 성숙, 그녀 이은주



살얼한 초겨울 저녁 카부사 신문은 영화 '하얀방'에서 열연한 이은주씨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녀의 차기작인 영화 '하늘정원'의 촬영지를 찾았다. 스크린에서 보여준 이미지와는 달리 그녀는 매우 차분하고 여성스러웠고, 인터뷰 질문 하나하나에 신중히 생각하며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영화배우로 훌쩍 성장한 그녀를 느낄 수 있었다.

-자기소개

생일은 80년생 12월 22일이고요, 이름은 이은주, 본명이에요. 학교는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이고요.

-데뷔하게 된 계기

저는 광고모델로 데뷔했어요. '스마트'라는 교복모델로 데뷔해서 광고를 먼저 찍고 드라마하고 영화를 하게 되었어요. 1997년도에 데뷔했지요. 전국적으로 열리는 모델대회에 참가해서 상을 받게 되어서 데뷔하게 되었어요.

-최근 근황

15일에 영화 '하얀방'이 개봉했고요, 지금은 차기작인 '하늘정원'을 촬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촬영날이고요. 안재욱씨와 함께 찍고 있어요. 요즘은 계속 영화촬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영화 '하얀방'에서 은주 씨가 맡은 '한수진'역에 대해 간략한 설명

20대 중후반의 방송국 프로듀서입니

다. 어느 공포영화처럼 어떤 사건이 연루하게 되요.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이트 안에서 자신의 죽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자신이 죽은 모습을 본 여성들은 모두 사이트 접속 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요. 하지만 제가 맡은 한수진이라는 역할은 의지가 강한 여자예요.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강한 의지를 보이는 그런 역할이에요. 정준호씨와 함께 영화를 찍었어요.

-공포영화를 찍으면서 어려웠던 점?

공포영화는 하나의 가상이잖아요. 가상 공간이고, 가상으로 놀래야 되고. 실제로 무서운 게 앞에 없는데 혼자 연기할 해야 되잖아요. 한번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존재를 가상으로 연기해야 한다는 게 조금 힘들어요.

-성격

냉정할 때는 저도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냉정해지고요, 또래들이나 가족들처럼 편한 사람들과 있을 때는 발랄해지고 많이 웃어요. 제가 웃음이 많아요. 일할 때는 조금 달라지는 면도 있어요. 일할 때는 좀 더 이성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성격이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 꿈은?

저는 피아노를 15년 정도 쳤어요. 5살

때부터. 그게 전공이었고 꿈은 피아니스트였고. 그게 한번도 바뀐 적은 없는데 배우라는 직업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꿈은 아직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동경하고 있는 꿈이에요. 이미 그 가능성은 없지만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입시시험을 보기 바로 직전에 진로를 바꿨어요. 피아노를 계속 치다가 갑작스럽게 바뀐 꿈이라 조금 아쉽기도 해요.

-존경하는 연기자가 있다면?

저와 영화를 같이 하신 분들 중에서는 문성근 선배님이나 강수연 선배님 등이 계셨는데 이 분들 뿐만 아니라 저와 영화를 같이 찍으신 모든 선배님들을 존경해요. 각자 한 가지 이상씩 배울 점들을 가지고 계시죠.

-앞으로 하고 싶은 역할

아직 안 해 본 역할이 너무 많아요. 사실

만육이 출연한 '화양연화'등이 있어요. 조금은 감동적이거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좋아해요. 보고 나서 메시지를 전달받고 조금이나마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영화가 좋아요.

-이상형

사실 이상형이라는 건 언제나 바뀌기 마련인 것 같아요. 외모를 보는 기준이나 생각 같은 거 말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바뀌지 않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랑이 한결같은 거예요. 외적인 부분이야 나중에는 변할 수밖에 없지만 이 두 가지만은 시간이 흘러도 변해서는 안 되겠지요.

-카부사에게 한마디

카부사가 되려면 정말 똑똑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



카부사 인은 박문진

데뷔 이후에 계속 차감고 정적인 역할을 하다가 최근에 '연애소설'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연애소설에서처럼 이전보다는 조금 밝은 역할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좀 더 강한 역할도 해보고 싶어요. 안해 본 역할이 너무 많아서 지금은 특별히 해보고 싶은 역할을 손잡을 수 없어요. 다 해보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피아노 실력을 살려서 영화 속에서 피아니스트 역할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카이스트'를 찍을 때에 원래는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작가님들이 제가 피아노 치는 부분을 드라마에 넣어 주시기도 했어요.

-감명 깊게 본 영화

외화든 우리 나라 외화든 개봉되는 영화는 빼놓지 않고 보고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휴머니즘이 물씬 풍기는 '인생은 아름다워', '어둠 속의 던서', 동양 영화에서는 영화배우 장

해야 카부사가 된다고요. 제 친구도 카부사에 지원했었는데 그 친구가 몇몇 보 이더라고요. 그런 카부사들이시니 만큼 군 생활도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에 몸조심하시고 힘든 훈련도 잘 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 많이 사랑해주세요.

일병 장승모



카부사 인은 박문진

## PROFILE

이름: 이은주  
 생년월일: 1980년 11월 16일(음)  
 신장: 168cm  
 혈액형: A형  
 학력: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